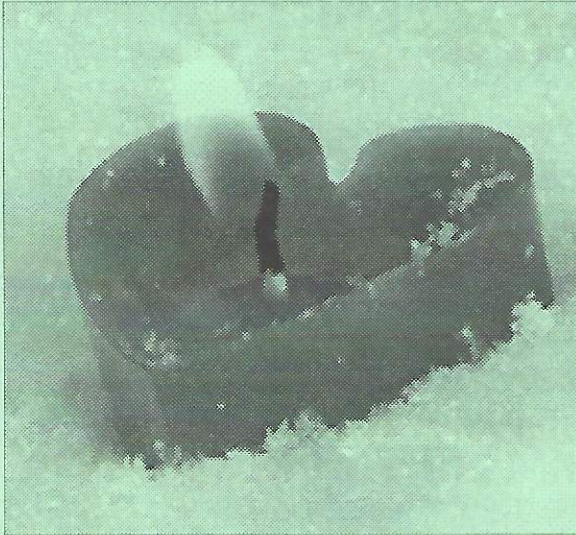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 30주일
제34권 48호(가해) 2014년 10월26일

[묵상]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20-21)

'사랑'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124위 시복특집 < 8 > 정약중 아우구스티노(1760~1801)

... 내가 물을 청한 것은 나의 위대하신 모범을
본받기 위함ियो...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교회사」에 기록된 정약중의 최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얼굴은 아주 빛났다. 도중에 수레 끄는 사람을 불러 목이 마르다고 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무라자 그는 “내가 물을 청한 것은 나의 위대하신 모범을 본받기 위함ियो.”라고 대답하였다. 옥중과 법정에서 지치지 않고 전도를 한 그는, 그의 순교 장소도 매우 웅변적인 강단(講壇)으로 만들었다. 형구(形具) 앞에 앉아 그는 그것을 행복스럽게 들여다보고나서 모든 사람이 물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외쳤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흠숭하올 천지만물의 대주재(大主宰)이신 이가 당신들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당신들은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하오. 그 근본을 어리석게 멸시와 조소거리로 삼지마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형리들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대라고 하니, 그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누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다. 망나니는 벌벌 떨며 감히 치지 못하였다.」

1801년 4월 8일, 41세를 일기로 순교한 정약중은 조선의 대표적 실학자 정약전, 정약용 요한의 형제입니다. 또한 1839년에 순교한 유조이 체칠리아 성녀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고, 1801년에 순교한 정철상 가톨릭과 1839년에 순교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 정정혜 엘리사벳 성녀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1794년 말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정약중은 자주 한양에 가서 성사를 받았고 신부와 교우들을 도와 교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오랫동안의 교리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 두 권을 완성하였는데, 이 책은 주신부의 승인을 받아 교우들에게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한편 주신부는 평신도들의 교리연구 및 전교단체인 ‘명도회’를 조직하고 정약중을 초대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황사영은 「백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약중은 특히 철학과 종교 연구를 즐겨하였다. 교리의 어떤 점이 분명치 않게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연구하느라 침식(寢食)을 잊고 그것을 밝혀내기까지 휴식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길을 가거나 집에 있거나 말을 타거나 배를 탈 때에도 깊은 묵상을 그치지 않았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역음

十 묵상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해외선교이야기 <모잠비크/성체의 기적>

선교사로 첫 소임지 마루빠 본당을 맡고 언어와 문화,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본당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들과 기숙사 아이들 그리고 본당 신자 몇 분과 평일 미사를 드리며 성체 분배를 하고 성함을 보니, 성체의 양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로이 제병을 축성 해야겠다고 동료 사제들과 이야기하고 사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사 중 감실에서 성체를 꺼내보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성함에 조금밖에 없었던 성체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동료 신부님들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또한 ‘혹시 이것이 바로 성체의 기적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함께 제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다시 성함의 성체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다시 성체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사 때 성함을 확인해보니 지난번과 똑같이 성체가 많아지는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 이었습니다.

저도 신부인이라 성체의 기적이 저희 본당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후 냉정을 되찾고, 뭔가 이상하다는 판단을 한 뒤 주위 탐문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안토니오 아저씨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아저씨는 저녁에 성당을 지키고, 아침이면 성당안팎으로 청소를 하고 미사 준비도 도와주던 본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미사를 준비할 때면 감실을 열어 성함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체가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으면 신부님들이 성체 분배 때 모자랄까 봐 걱정돼서 미리미리 제병을 가져다 성함에 가득 담아두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안토니오 아저씨는 제병과 축성된 성체에 대한 차이를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선교지에서의 ‘성체의 기적’ 해프닝은, 아저씨에게 미사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며, 성체 기적이 없는(?) 정성스러운 아침 미사가 되었습니다.

◆ 박광기 신부 / 한국의방선교회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

미사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제사적 측면뿐 아니라 ‘파스카의 잔치’, ‘친교와 식사의 나눔’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미사를 통해 우리의 전(全) 생활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지향을 늘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이렇게 미사가 삶, 곧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본당 소년 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회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바오로 단장 ☎(310)709-3343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 관심있으신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8일(토요일)
- 연도 : 1시30분, 미사 : 2시
- 장소 : 홀리크로스
- 주관 : 평화의모후 한인 천주교회

◆ 제27기 커피 교육 안내

- 일시 : 11월 16일(일요일) 낮 2시 ~6시
11월 17일(월요일) 저녁 6시 ~10시
양일중 택일하여 수강후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천주교회 회의실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사무실)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10/18(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0/25(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10/10(금) 오후 7:30 성당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0/18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0/18(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코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0/10(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0/19(일) 12시30분 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테레사 634-6923 10/17(금) 오전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10/11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404-1607 10/20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이병우 마리노 749-3151 10/11(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정훈모 바오로 213-700-6983 10/10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0/10 (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0/12(일)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0/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오후1시
-----------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효도관광(레이크 엘시노어 온천장)

- 일시 : 10월27일(월요일)
- 대상 : 55세이상(전신자, 남,녀불문), 45명 예정
- 회비 : \$20(1인), \$30(부부 또는 가족2인)
- 출발 : 오전 7시 30분, 오후 6시도착예정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310)781-0021

◆10월 울프레아 정기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오늘주일 (26일), 오후4시
 - 장소 : 성당 강당
 - 문의: 남해나 분다 ☎(310)384-3289
- 많은 꾸르실리스타 선배님들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남가주 한인 M.E sharing 모임

- 일시 : 10월26일(일요일) 저녁 6시
- 대상 : M.E를 다녀오신 모든부부
- 장소 : 친교장(따뜻한 옷 착용)
- 식사 : 브라질리안 B.B.Q

◆ 배론 청년회 기금마련 "냉동왕만두 / 고구마" 판매

- 일시 : 11월 1일 (토), 2일 (주일)
- 왕만두4개 / \$10, 고구마 \$16 /10LBS
- * 수량한정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310)508-2123

◆201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의 밤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멕시코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집합니다

11월 초에 선교팀 15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비록 집에서 잠자고있던 작은 물품도 학용품이 없는 지구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 기간 : 오늘주일(26일)까지 사무실내 지정장소
- 품목 : 모든 학용품및 가방

◆ 제33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엘도라도파크 (Long Beach소재)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주교님
- 주관 : 성 바실 성당
- 합동야외미사에 오시는 신자분들은 가급적 카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햇빛가리개 모자는 각자 준비하여 주십시오.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여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 행사 후에는 깔끔한 뒷정리도(쓰레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6일(주일) * 토론티 북1 : 소고기우거지국밥(\$3)
* 주일학교 : 칠리덕 (7학년)]
- 11월2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4)
* 주일학교 : 스파게티(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장순복	장태홍	김대우	김병태	김성택	김양금		장태홍	김대우	김양금	김현숙	나경흠	남성철
	김옥찬	김윤진	김재영	김택수	김현숙	나경흠		박광자	신순철	양영관	윤희동	이우성	장영우
	남성철	노천수	박광자	박진수	변복순	송재훈		정혜영	최원석	황인중	황지영	이크리스	
	신순철	양영관	오신재	우희균	육근주	윤철		한길선례					
	윤희동	이우성	장영우	정인옥	정혜영	최원석							
	한창주	황인중	황지영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4,880							합계 : 1,410						
주일미사 헌금 : \$2,772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명절 같은 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끝까지 즐겁게 지내려면 ‘정치 얘기는 절대 금지’라는 합구 규칙이 암암리에 가족들을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로 서로 생각이 엇갈리면서 찬성(지지)과 반대(비난)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몹시불편해 하는 가슴 아픈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름’은 생각의 ‘차이’일 뿐 ‘틀림’은 아니라고, 말은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 사랑 - 이웃 사랑’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경천’(敬天)이라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애인’(愛人)이라 합니다. 이 ‘경천애인’을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분량의 ‘율법’ 내용을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 똑같은 무게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느님 사랑’만 강조하셨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님과 대화 나누고, 하느님에 꼭 빠져 살면 된다는 식의 ‘혼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이웃 사랑’만을 중요한 계명으로 내놓으셨다면, 마치 종교가 아니라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자선단체’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쏠려서도 안 될, 즉 ‘이웃 사람들을 무시한’ 오로지 하느님 사랑만도 아니고, 또 ‘하느님을 외면한’ 단순한 이웃 사랑만도 아닌, 하느님과이웃 모두를 향한 ‘두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웃 문제, 사회적 문제보다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살짝 생각의 각도를 비틀어 봅니다.

만약에 악마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도 자칫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아주 열심히 철저히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다른 곳에 한눈 팔아서는, 안되고 세상과 이웃에게 시선을 흘뜨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아니, 내가 탄 데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을 따르겠다는데, 이런나를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유혹입니다.혹은 ‘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데, 남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챙기라는 말, 내 코가 석 자인데.’라는 생각 또한 유혹입니다.

유혹은 다독이며 달랠 문제가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 이명찬 신부 /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욕망-오르막

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힘들지 않는 오르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취감도 클 테니 참을 수 있습니다.

꽃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쉬어갈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상에서 누려도 충분하니 일단 올라가고 붙입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팅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용식 베드로
	(생)김지수 헬렌 & 박수진 보나 & 정진욱 노엘, 변혜경 올리안나, 성호재 시몬 & 성아라 매도우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철우 야고보, 최근석 마리아, 오선옥, 유산된 이름없는 아이들의영혼, 김옥순 소피아, 김원태 바오로 & 김영선 바오로,
	(생) 변혜경 올리안나, 송영원 크리스티나, 장정진 베로니카, 최희태 베드로, 안나희 회원들, 현시영 요셉, 오사이몬, 정명미 모니카, 오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 (Exodus) 22, 20-26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입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제 2독서 데살로니카(Thessalonians) 1, 5-10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2, 15-21

영성체송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192	176
봉헌	264	269	265
성체	382	295, 308	282
파견	383	321	200

성령과 세신

올바른 성령 이해

1) 성령에 관한 이단과 교부들의 가르침

오리게네스(†253/254년경)는 성부에 대해 성자와 성령을 종속(從屬) 관계로 이해하였다. 그는 성경에 따라서 성자가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키고, 또 성령을 성자에게 종속시켰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성부만이 엄밀한 의미의 하느님이고, 성자는 빛이 발광체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듯 성부에게서 태어난 하느님이며, 성령은 성자에게서 유래되었기에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3세기 후반에 특히 동방 지역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오리게네스와 비슷하게 종속론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아리우스(†336)는 이러한 종속적 이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이단적 종속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성부와 같은 본질에서가 아니라 무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 곧 “일종의 제2급 신(神)”으로서 피조물 중에 첫째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 사업의 중개자” 일 뿐이다. 아리우스에게 참하느님은 오직 성부이고, 성자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느님일 뿐 완전한 의미에서 하느님은 아니다. 아리우스 이단에 위기를 느낀 교회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서 성자의 온전한 신성을 천명한다. 공의회는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여 성자를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本體)” 라고 고백한다. 성자의 온전한 신성에 대한 고백에 이어 “또한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신성도 인정한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4세기 중반에 마케도니우스파 또는 성령 피조설파(被造說派)가 등장한다. 이들은 종속론적 견해를 성령에게 적용한다. 곧 성령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히브리서 1장 13-14절에서 언급된 천사와 같은 유형의 중간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시종으로서 권력과 능력 면에서 그리스도의 밑에 종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 곧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오(†379),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390), 니사의 그레고리오(†395)에 의해 반박되었다. 마침내 381년에 개최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신경을 통해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참하느님 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였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發)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하느님께 해당되는 표현인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을 성령께 적용함으로써, 또한 ‘성령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에게서 발하시는 분’으로서 하느님께만 해당되는 ‘영광과 흠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계속>